

2024년 KEXIM 경제·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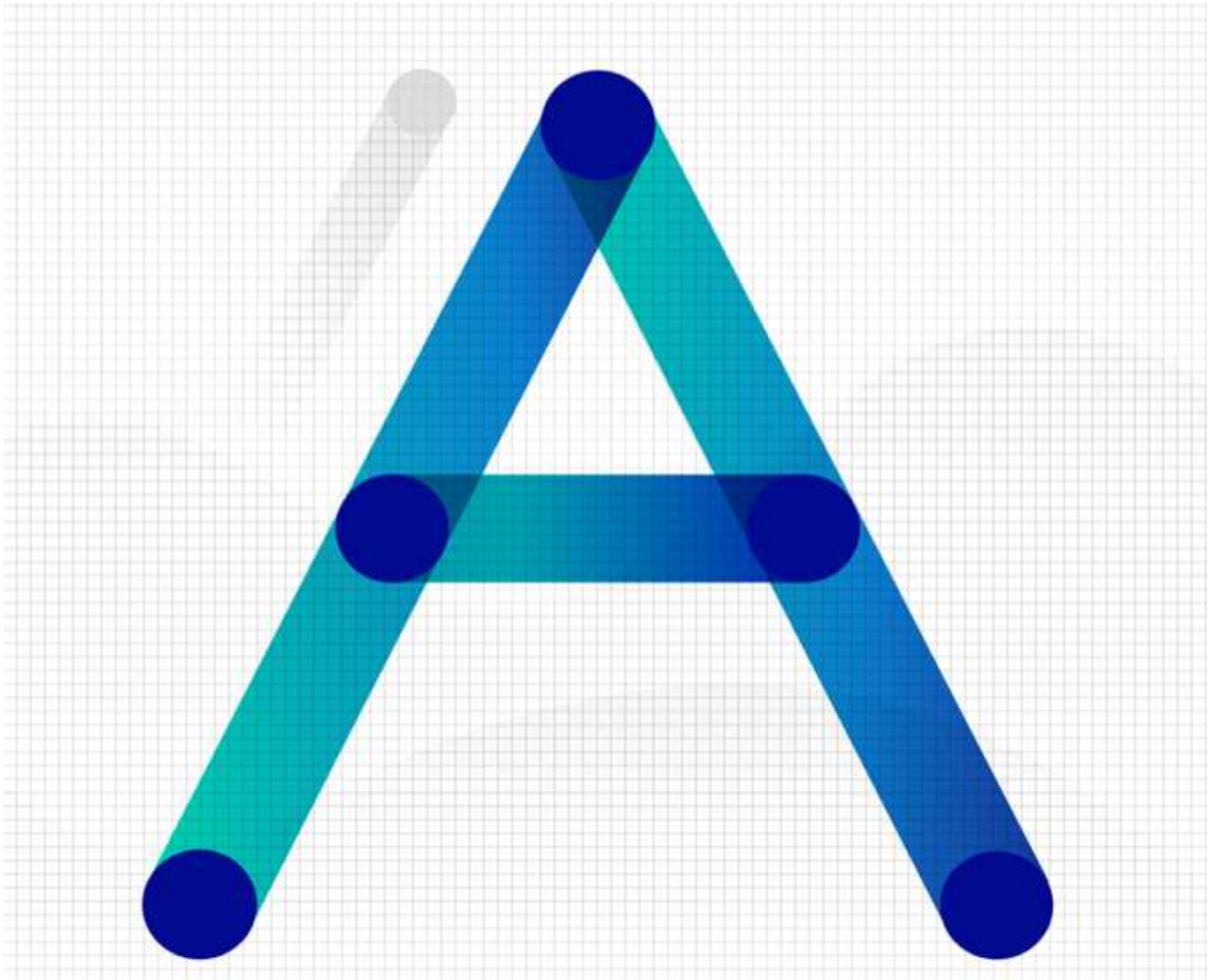
I. 국내외 경제전망

- 가. 세계 경제전망
- 나. 국내 경제전망

II. 주요 산업별 전망

- 가. 주요 수주산업
- 나. 첨단 전략산업
- 다. 주력 수출산업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작 성

수석연구원 양종서(6252-3586)

수석연구원 김윤지(6252-3607)

선임연구원 성동원(6252-3611)

선임연구원 강정화(6252-3612)

선임연구원 이미혜(6252-3608)

책임연구원 이현진(6252-3609)

<요 약>

I. 국내외 경제전망

가. 세계경제전망

□ '24년 세계경제는 중국 경기 부진 심화, 주요국 긴축 통화정책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2%대 후반 성장 전망

- 2023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엔데믹화,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조기 해소로 상반기에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지만, 하반기 중국 경기 및 글로벌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3.0% 성장
- 2024년에는 중국 경기 부진,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긴축 통화정책 지속,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지원 여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2%대 후반 성장 전망
- **(미국)** 임금 상승 둔화, 팬데믹 기간 축적된 저축 소진, 연준의 긴축 정책 등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돼 1.5% 내외 성장 전망
- **(유로존)** 2023년 서비스 산업은 회복했으나 제조업 및 교역 위축으로 국가별 성장 차별화를 나타낸 유로존은 2024년 회복세가 강화되며 1.0% 내외 성장 전망
- **(신흥국)** 중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원자재 수출국 등의 성장이 제한되면서 4.0% 성장에 머물 전망
- **(교역량)**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금리도 안정화됨에 따라 감소했던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교역량은 3%대 중반 성장 전망

※ '24년 세계 교역증가율 전망: IMF 3.5% (상품·서비스) , WTO 3.3% (상품)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IMF	IMF	OECD	한국은행	IMF
전세계	3.0	2.9	2.7	2.8	3.2
선진국	1.5	1.4	2.8	-	1.8
미국	2.1	1.5	1.5	1.3	1.8
유로	0.7	1.2	0.9	0.9	1.8
일본	2.0	1.0	1.0	1.0	0.7
한국	1.4	2.2	2.3	2.1	2.3
신흥국	4.0	4.0	-	-	4.1
중국	5.0	4.2	4.7	4.6	4.1
인도	6.3	6.3	6.1	-	6.3

주: IMF(10월), OECD(11월, 선진국은 G20), 한국은행(11월)

나. 국내경제전망

□ '24년 국내경제는 IT경기 반등 및 수출·투자 회복으로 '23년보다 개선되나, 중국경기 둔화 영향으로 2%대 초반 성장 전망

- 2023년 상반기에는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이 부진했으나, 하반기 이후 완만한 소비 회복,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다소 회복돼 1.4% 성장
- (민간소비) 2023년에는 축적된 초과저축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민간소비가 회복됐으나 하반기 부진으로 1.9% 증가, 2024년에는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동일 수준 전망
- (설비투자) 2023년에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지연 등으로 설비투자 0.4% 감소, 2024년에는 반도체 및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설비 투자 확대에 4.1% 증가 전망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은	IMF	OECD
국 내 총 생 산(GDP)	2.6	0.9	1.8	1.4	2.1	2.2	2.3
민 간 소 비 지 출	4.1	3.1	0.7	1.9	1.9	-	-
설 비 투 자	△0.9	5.3	△5.8	△0.4	4.1	-	-

주: 2022~2023년 수치는 한국은행(11월), 2024년은 IMF(10월), OECD(11월)

- (수출) 글로벌 제조업 투자·수요 개선으로 '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8% 내외 증가 전망
- ('22년 동향) 상반기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부진했으나, 하반기 미국 인프라 투자 증가, 자동차 수출 호조로 감소세가 완화되어 전년 대비 7.8% 감소
- ('23년 전망) 반도체 경기 반등, 글로벌 제조업 투자·수요 개선으로 인한 세계 상품무역 증가율 증가 등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8% 내외 증가 전망

*세계 상품무역 증가율(IMF) : 5.1%('22)→0.9%('23)→3.5%('24^f)

대외거래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 연구소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 연구소
경상수지	298	300	319	-	490	426	-
수 출	6,836 (6.1)	6,306 (△7.8)	6,406 (△7.2)	6,300 (△7.8)	6,894 (9.3)	6,836 (6.7)	6,800 (8.0)
수 입	7,314 (18.9)	6,508 (△11.0)	6,160 (△8.8)	- -	6,760 (3.9)	6,380 (3.6)	- -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수출은 한은·해외경제연구소는 통관기준, KDI는 상품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11월), KDI(11월) 전망 기준

Ⅱ. 주요 산업별 수출전망

가. 주요 수주산업

□ 선박 수주는 연료 전환에 대한 관망세 확산 등으로 부진, 해외건설은 중동 지역 개발에 따른 발주 확대 등으로 증가 전망

- **(선박)** '24년은 고금리 추세 지속과 연료 전환에 대한 관망세의 확산 등으로 세계 신조선 발주량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국내 수주량 역시 감소 전망
- **(해운)** '24년 석유, LPG 등 에너지 관련 운송시황은 다소 하락한 선에서 양호한 시황을 유지할 전망이나 드라이벌크와 컨테이너 해운은 세계경기 둔화, 선박량 증가 등으로 부진 전망

* BDI 운임지수 전망 : ('23) 1,310(32.3%↓) → ('24) 1,250(4.6%↓) → ('25~'27) 1,400~2,000

- **(해외건설)** '24년 원전 및 네옴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 건설시장도 전년 대비 8.5% 성장하는 등 대외 상황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인프라)** '24년 인프라 수주액은 기저효과 및 원전 등 대형 발전소 수주 가능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요 수주산업 수주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3년 ^e	'24년 ^f	'24~'26년 전망
선 박	335 (△28.7%)	275 (△17.9%)	275~400
해 외 건 설	350 (12.9%)	380 (8.6%)	380~420
- 인 프 라	90 (△16.7%)	120 (33.3%)	120~140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나. 첨단 전략산업

□ 산업의 디지털화(AI, Big data, Cloud 등), 친환경 요구 확대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산업 성장 지속

- **(반도체)** 반도체 수출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3년간 증가세 지속 전망
-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 가격 하락 및 현지생산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 **(태양광)** 미국 현지 생산 증가 및 글로벌 모듈 가격 하락으로 수출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엔데믹화로 2023년 백신·진단키트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2024년 수출은 기저효과로 인한 수출 증가 예상
- **(미래차)** 중국업체의 해외진출, 보조금 축소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겠으나 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 증가세는 지속 전망
- **(로봇)** 인구고령화, 인건비 상승, 주요 기업의 로봇사업 강화 등으로 로봇 수출은 증가할 전망

첨단 전략산업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3년 ^e	'24년 ^f	'24~'26년 연평균 증가율
반 도 체	975 (△24.6%)	1,170 (20.0%)	10.7%
리 튼 이 차 전 지	75 (2.2%)	75 (0.0%)	3.3%
태 양 광	13 (△16.1)	12 (△7.7%)	△8.5%
바 이 오 ^{주 1)}	76 (△27.5%)	80 (5.3%)	2.8%
미 래 차 ^{주 2)}	138 (68.8%)	178 (29.0%)	18.8%
로 봇	5 (22.0%)	6 (12.5%)	9.5%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주1) 의약품 수출액 기준

주2) 전기차 수출액 기준

다. 주력 수출산업

□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 중국의 자금률 증가 및 경쟁력 상승에 따른 경쟁 심화로 완만한 성장세 전망

- **(일반기계)** 중국의 국산율 제고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따른 투자 둔화로 당분간 저성장을 나타낼 전망
- **(석유화학)**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상존하며, 중국 자금률 제고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 증가율 둔화 전망
- **(자동차·자동차부품)** 고부가가치 차량(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의 글로벌 수요 지속과 해외 현지공장 증설 등으로 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철강)** 세계 수요의 완만한 개선에도 중국의 생산량 증가로 국내 수출량은 정체 수준이 될 전망
- **(석유제품)** 선진국 경기침체와 에너지 전환 움직임 등 수요 위축, 글로벌 공급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출액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
-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 TV 교체주기 도래, IT 기기의 OLED 탑재율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 예상
- **(이동통신장비)** 5G 보급이 완성됨에 따라 스마트폰, 통신장비 등 글로벌 통신산업은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주력 수출산업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3년 ^e	'24년 ^f	'24~'26년 연평균 증가율
일 반 기 계	525 (2.7%)	540 (2.9%)	2.7%
석 유 화 학	450 (△17.2%)	460 (2.2%)	2.2%
자 동 차 · 차 부 품	910 (17.6%)	973 (6.9%)	5.9%
철 강	350 (△9.0%)	360 (2.9%)	1.4%
석 유 제 품	510 (△18.9%)	510 (0.0%)	1.9%
디 스 플 레 이	212 (△13.1%)	220 (3.9%)	4.0%
이 동 통 신 장 비 주 1)	141 (△15.9%)	145 (3.2%)	2.8%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주1) 휴대폰 및 통신장비 수출액 기준



I. 국내외 경제전망

가. 세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24년 세계경제는 중국 경기 부진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정책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2%대 후반 성장 전망

- 2023년에는 코로나19 엔데믹화,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조기 해소로 상반기 안정적 성장 흐름이 나타났지만, 하반기 중국 경기 및 글로벌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3.0% 성장
- 2024년에는 중국 경기 부진,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통화 긴축정책 지속,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지원 여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보다 소폭 낮은 2%대 후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회복세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5년 이후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IMF	IMF	OECD	한국은행	IMF
전세계	3.0	2.9	2.7	2.8	3.2
선진국	1.5	1.4	2.8	-	1.8
미국	2.1	1.5	1.5	1.3	1.8
유로	0.7	1.2	0.9	0.9	1.8
일본	2.0	1.0	1.0	1.0	0.7
한국	1.4	2.2	2.3	2.1	2.3
신흥국	4.0	4.0	-	-	4.1
중국	5.0	4.2	4.7	4.6	4.1
인도	6.3	6.3	6.1	-	6.3

주: IMF(10월), OECD(11월, 선진국은 G20), 한국은행(11월)



- **(미국)** 고용·소비 호조, 기업 투자 강화로 2023년 2.1% 성장하며 세계 경제 회복세를 주도한 미국은 2024년에는 임금 상승 둔화, 팬데믹 기간 축적된 저축 소진, 연준의 긴축 정책 등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돼 1.5% 내외 성장 전망
- **(유로존)** 2023년 서비스 산업은 회복됐으나 제조업 및 교역 위축으로 국가별 성장 차별화를 나타낸 유로존은 2024년 회복세가 강화되며 1.0% 내외 성장 전망
- **(신흥국)** 내수 성장세가 높은 인도(6.3%↑) 등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비해 회복세가 더뎠으며, 2024년에도 중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원자재 수출국 등의 성장이 제한되면서 4.0% 성장에 머물 전망
- **(중국)** 부동산 구조조정 문제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은 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이 2024년에도 이어져 성장률이 4.2~4.7%에 머물 전망

• 위험 요인 :

- ① 중국 부동산 부문의 위기가 금융부문 손실 증대, 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파급되며 환율 변동성과 자본 흐름 불안정을 일으켜 다른 신흥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 ②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통화 긴축 기간이 예상보다 더 연장됨에 따라 투자 위축 등 경제활동 둔화가 심화될 가능성
- ③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늘어나면서 지역간 상품 흐름을 제한하는 지역 블록화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
- ④ 통화 긴축으로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신흥국가에 광범위한 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 ⑤ 폭염과 가뭄, 엘니뇨 등 기후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식량·원자재 가격 변동이 커지고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위험

(2) 세계교역

□ 2024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 증가율 3.5% 내외 전망

- 2023년 세계 교역량은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위축돼 0.9% 증가
 - 상반기 상품 교역량은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했지만 하반기 완만히 회복
-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금리도 안정화됨에 따라 감소했던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교역량은 3%대 중반 성장 전망
 - 2023년 0.6% 증가에 불과했던 아시아의 상품 수출량은 2024년 5.1% 증가하겠으며, 각각 $\Delta 1.2\%$, $\Delta 0.7\%$ 감소했던 북미, 유럽의 상품 수입량도 2024년에는 2.2%, 1.6% 증가할 전망

세계 교역성장률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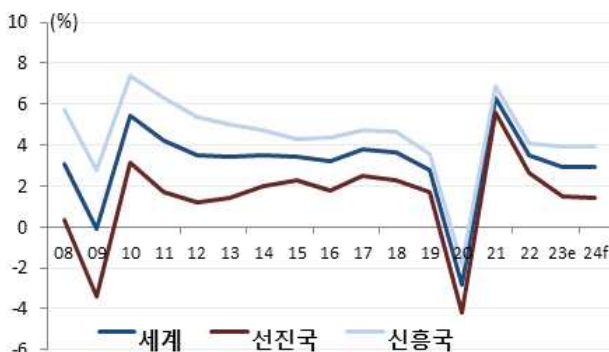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IMF	IMF	WTO	IMF	WTO	IMF
교역성장률		5.1	0.9	0.8	3.5	3.3	3.7
수입	선진국	6.7	0.1	-	3.0	-	3.2
	개도국	3.2	1.7	-	4.4	-	4.7
수출	선진국	5.3	1.8	-	3.1	-	3.3
	개도국	4.1	$\Delta 0.1$	-	4.2	-	4.2

주: IMF는 상품·서비스 물량 기준, WTO는 상품 물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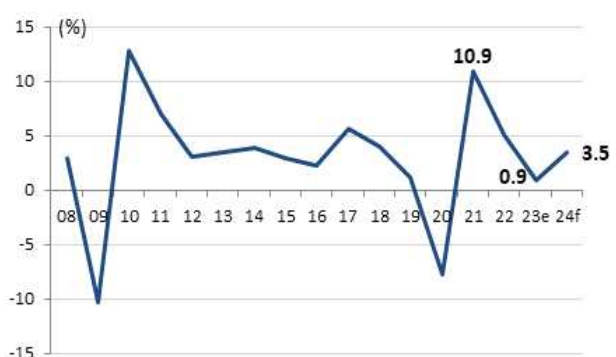
자료: IMF(10월), WTO(10월) 전망 기준

세계 경제성장률



자료: IMF(10월)

세계 교역성장률



(3) 금융시장

□ 금리

- 주요국 긴축 사이클은 종료되고 있으나,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수준 달성까지 통화정책을 제약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금리는 2024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미국 기준금리(5.25 ~ 5.50%, FOMC '23.11.02)는 연말까지 동결 분위기가 높아졌으며, 금리 인하는 2024년 중반부터 시작돼 연중 5%대를 지속하다 연말 4%대 후반~5%대 초반에 이를 전망
 - ※ 미 연준위원 기준금리 전망치(중앙값) : ('23년말) 5.6%, ('24년말) 5.1%, ('25년말) 3.9%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장기화 유지 전망에 따라 장기금리인 미국 국채 수익률(10년물)도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8%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지속해 2024년에도 4%대를 유지하다 연말 3%대 후반에 이를 전망
 - 미국 장기금리는 미국 내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물량 증가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경우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중국 경제 리스크 증가 등 금융불안 경계감으로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할 경우 금리 상승세가 제약될 전망
- 2023년 1월 이후 3.5%를 유지해 온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024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 연말 기준 2.8% 내외 수준에 이를 전망
 -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미국 국채 금리 수준, 환율 및 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

금리 전망

단위: %

구 분	2023년	2024년 1/4	2024년 2/4	2024년 3/4	2024년 4/4	비 고
미 국	4.53	4.39	4.23	4.07	3.94	T/B(10년물)
한 국	3.76	3.55	3.27	3.05	2.81	국고채권(3년물)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3.11.30일자 기준, 2023년은 4분기말 전망치)



□ 환율

- 2024년 미 달러화는 연준의 긴축 종료로 연중 완만히 하락하겠으나, 상반기에는 주요국과의 금리차가 유지되고 미국 경기도 호조세를 이어감에 따라 약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
- 미국 경제 둔화와 물가 상승폭 완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부각될 경우 달러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
- 2024년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긴축 종료 및 달러화 강세 압력 완화, 수출 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등의 영향으로 달러당 1,230~1,310원 수준에서 완만히 하락할 전망
-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중국 경기 회복 여부 등 대내외적 불확실 요인들이 잠재해 있어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높을 수 있으며 환율 하락 속도도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음.

달러지수 및 원/달러 환율 전망

구 분	2023년 평균	2024년 1/4	2024년 2/4	2024년 3/4	2024년 4/4
달러지수(DXY)	103.3	103.5	101.9	100.6	98.9
원/달러	1,306	1,311	1,293	1,268	1,239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3.11.30일자 기준, 2023년 평균은 11월까지 평균값)



□ 유가

- '23년 유가는 상반기 배럴당 79달러 기록(두바이유 기준), 하반기 들어 수급타이트로 상승, 9월 배럴당 90달러대로 급등한 이후 10월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했으나 이-팔 전쟁발발로 90달러대로 재상승, 연평균 유가는 **약 83달러 수준** 전망
- '23년 상반기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미국의 강경한 긴축 정책과 금융 불안, 중국 경기 회복지연 등에 따른 수요 둔화 및 러시아의 원활한 공급 지속 등으로 '22년 상반기 대비 약 23% 하락(\$24.64/bbl ↓)한 \$78.94/bbl 기록
- '23년 3분기 유가는 공급축소 우려와 수요증가, 원유재고 감소세 등 수급 타이트로 급등, 9월 배럴당 90달러대 돌파(9.28일, \$96.75/bbl), 평균 \$86.63/bbl 기록
- '23년 4분기 유가는 비수기 돌입 등 수요 둔화로 3분기(\$87/bbl)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OPEC+ 감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급등 가능성 대두에 따라 배럴당 80달러 중후반대 수준으로 상향조정, '23년 평균 유가는 전년대비 약 15% 하락한 80달러 초반대 전망
- '24년 유가는 경제성장률 둔화 및 OPEC+ 감산 완화 기대 등으로 올해 하반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평균 유가는 올해(배럴당 83달러 수준)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한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 수준** 전망
- IMF는 10.10일, 세계 경제 성장률('23년 → '24년)이 3.0% → 2.9%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23년 전망치는 올해 7월 전망치와 동일하나 내년도 전망치는 0.1%p 하향조정)
- 미국 등 비OPEC 원유 생산량 증가세 둔화, 낮은 수준의 상업적 원유재고 등으로 큰 폭의 유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전망시기)	유종	2023		2024 평균
		4분기	평균	
해외경제연구소 ('23.10월)	두바이유	87.00	82.88	83.50
에너지경제연구원 ('23.10월)	두바이유	87.11	83.31	n/a
한국석유공사 ('23.10월)	브렌트유	89.53	83.91	85.00
	WTI유	85.30	79.36	n/a
	두바이유	88.70	83.39	n/a
Argus ('23.10월)	브렌트유	89.10	83.80	86.90
	WTI유	86.30	79.60	82.90
EIA ('23.10월)	브렌트유	90.65	84.09	94.91
	WTI유	86.65	79.59	90.91

자료: 각 기관 전망자료 취합



나. 국내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24년 국내경제는 2%대 초반 성장 전망

- 2023년 상반기에는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이 부진했으나, 하반기 이후 완만한 소비 회복,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다소 회복돼 1.4% 성장
- 2024년에는 글로벌 제조업 투자·수요 개선, IT 경기 반등으로 인한 수출 및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2023년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대 초반 성장 전망
- **(민간소비)** 2023년에는 축적된 초과저축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민간소비가 회복됐으나 하반기 부진으로 1.9% 증가, 2024년에는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동일 수준 전망
- **(설비투자)** 2023년에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지연 등으로 설비투자 0.4% 감소, 2024년에는 반도체 및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설비 투자 확대에 4.1% 증가 전망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은	IMF	OECD
국 내 총 생 산(GDP)	2.6	0.9	1.8	1.4	2.1	2.2	2.3
민 간 소 비 지 출	4.1	3.1	0.7	1.9	1.9	-	-
설 비 투 자	△0.9	5.3	△5.8	△0.4	4.1	-	-
실 업 륜	2.9	3.0	2.4	2.7	2.9	-	-
소 비 자 물 가	5.1	4.0	3.3	3.6	2.3	-	2.7

주: 2022~2023년 수치는 한국은행(11월), 2024년은 IMF(10월), OECD(11월)

□ 고용과 물가

- **(고용)** 2023년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노동 수요 증가세가 지속돼 취업자수 34만명 증가, 실업률 2.7% 예상, 2024년에는 제조업 노동 수요는 증가하겠으나 서비스 부문 둔화 영향으로 취업자수 24만명 증가, 실업률은 2.9% 전망
- **(물가)** 2023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국제 유가 안정,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돼 전년보다 낮은 3.6% 상승, 2024년에는 수요 둔화 및 전기·가스요금 등 비용상승 압력 완화 등으로 2.3% 상승 전망

(2) 수출입

□ 2024년 수출은 전년대비 8% 내외 증가 전망

- 2023년 수출은 상반기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부진했으나, 하반기 미국 인프라 투자 증가, 자동차 수출 호조 지속으로 감소세가 완화돼 전년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내외 전망
- 2024년에는 반도체 경기 및 수출 물가 회복, 글로벌 제조업 투자·수요 개선으로 인한 세계 상품 교역 성장률 증가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화돼 전년대비 8% 내외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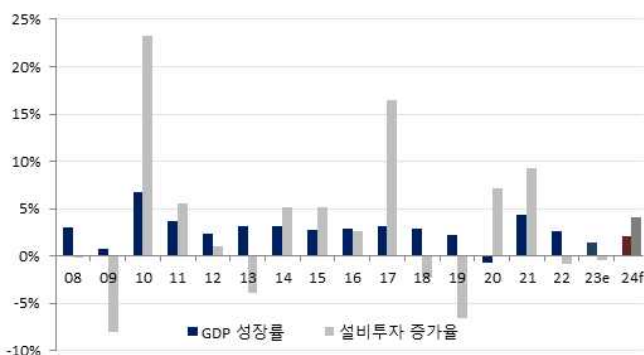
대외거래 전망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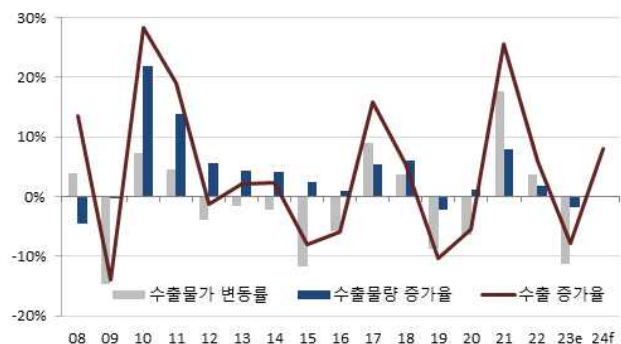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 연구소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 연구소
경상수지	298	300	319	-	490	426	-
수 출	6,836 (6.1)	6,306 (△7.8)	6,406 (△7.2)	6,300 (△7.8)	6,894 (9.3)	6,836 (6.7)	6,800 (8.0)
수 입	7,314 (18.9)	6,508 (△11.0)	6,160 (△8.8)	- -	6,760 (3.9)	6,380 (3.6)	- -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수출은 한국은행·해외경제연구소는 통관기준, KDI는 상품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11월), KDI(11월) 전망 기준

경제성장률 및 설비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II. 주요 산업별 전망

가. 주요 수주산업

(1) 조선 (부분품 포함)

□ (글로벌 트렌드) '23년 신조선 시장은 부진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황을 유지하였으며 '24년 일시적 발주 감소 후 '25년부터 시황 호조 전망

- '23년 신조선 시장은 고금리, 해운시황 악화, 지난 2년간의 과다한 컨테이너선 발주, 환경규제 페널티 약화와 암모니아 연료추진선 상용화 기대감 등으로 적극적인 발주보다 관망세가 예상되며 부진 가능성이 우려되었음
- 그러나 메탄올연료추진선 시험선대를 위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대량발주,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관련 선종의 해운시황 호조 지속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수준이나 비교적 양호한 시황 유지
- 10월까지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23.5% 감소한 3,369만CGT 기록
- 발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10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176.02로 전년말 대비 8.8% 상승
- '23년 세계 발주량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3,850만CGT 예상
- 2008년까지 약 6년간 지속된 호황기의 대량 건조로 인하여 해운시장에서 2011년 이후 선박량 과잉이 발생하여 아직 해소되지 못함
- 시황주기로는 2030년대 초까지 장기침체 지속이 정상적 상황이나 세계 LNG 산업의 팽창과 해상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규제의 영향 등으로 많은 신조선 수요가 발생하며 10~20여년의 꾸준한 시황 호조가 예상됨
- 다만, '24년에는 고금리 지속, 암모니아연료추진선 상용화 기대에 따른 관망세 확산 등으로 발주량이 29백만CGT 수준으로 감소한 후 '25년 이후 환경규제 대응 수요와 암모니아연료추진선 발주 시작 등으로 40백만CGT 내외의 발주량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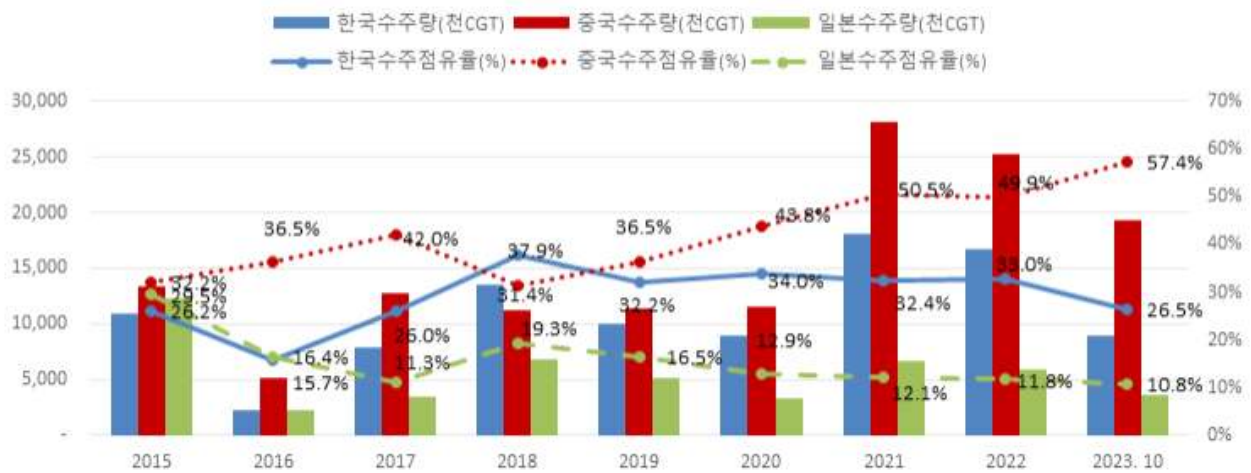
□ (국내외 경쟁력) '23년 중국의 약진으로 인하여 국내 수주점유율 하락

- 중국의 조선업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근거는 없으나 '23년 들어 중국은 외교적 이해관계, 청정연료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주요 선사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대거 수주하며 10월까지 약 57%의 수주점유율 달성



- 꾸준히 30% 대의 수주점유율을 유지하였던 한국은 10월까지 약 27% 수준으로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4분기 카타르발 LNG선의 대거 수주로 연말까지는 30% 대의 점유율 회복 예상

한중일 3국의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자료 : Clarkson

□ (수주 및 수출) 국내 조선업의 신조선 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연말까지 1년치 이상의 일감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이후 다시 양호한 실적의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10월까지 국내 신조선 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41.5% 감소한 893만CGT로 다소 부진한 수준이나 4분기 중 카타르발 LNG선을 대거 수주하며 1년치 일감인 1,100만 CGT 이상의 수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 10월까지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5.5% 감소한 259.4억달러
- 수출은 충분한 일감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인력 부족으로 다소 부진한 수준이며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한 167.8억달러를 기록하였고 '24년 이후 생산시스템 안정화로 수출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
- '24년도 국내 수주량은 17.4% 감소한 950만CGT에 그쳐 다소 부진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 이후 다시 수주가 증가하며 양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신조선 시장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선사들의 관망세 지속가능성이며 국내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숙련 생산인력의 확보 문제임

- 최근 IMO가 탄소중립 중기전략을 강화하며 향후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해운업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관망세 확대 가능성도 상존함
 -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려 하여도 연료의 가용성과 경제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체연료로의 전환 투자는 쉽지 않은 선택임
 - 또한, IMO가 CII 규제 시행 직전에 준비가 미흡한 해운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페널티 조항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여 비현실적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전례를 남김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시행될 규제에 선사들이 적극 대응하기 보다 관망세를 유지하며 신조선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음
- 일감이 증가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사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이며 이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내 조선업계의 경영 안정화에 가장 큰 관건임
 - 조선업계에서 구조조정 과정과 2018년 이전 불황기 동안 많은 숙련 기능인력이 이탈하여 건설업계로 취업하였으며 조선업계가 인건비를 낮춰 이들의 복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현재 해외인력을 도입하여 생산에 임하고 있고 향후 임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나 건설업계의 숙련 인력이 복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 상황에서 생산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수주받은 물량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리스크임

조선산업 수주·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CGT,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주량	선박	18.0 (105.3)	16.7 (△7.2)	8.9 (△41.5)	11.5 (△31.0)	9.4 (△18.0)	11.9 (26.2)	12.9 (8.4)
	해양	0.2 (△12.2)	0.1 (△49.6)	0 (N/A)	0 (△100.0)	0.1 (N/A)	0.1 (0.0)	0.1 (0.0)
수주액	선박	408 (126.2)	448 (9.7)	259 (△35.5)	335 (△25.2)	260 (△22.4)	330 (26.9)	365 (10.6)
	해양	34 (353.1)	15 (△56.0)	0 (N/A)	0 (△100.0)	15 (N/A)	15 (0.0)	15 (0.0)
수출액		230 (16.4)	182 (△20.9)	168 (15.3)	190 (4.5)	245 (28.9)	265 (8.1)	275 (3.8)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Clarkson,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해운

□ (글로벌 트렌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해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탱커시황은 예외적인 호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당분간 지속 전망

-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산업투자가 부진해지며 드라이벌크 해상 운송수요가 둔화되고 소비의 둔화로 컨테이너 운송 수요도 둔화된 것으로 추정
- 반면, 코로나 초기의 일시적 호황 이후 긴 침체를 겪은 탱커 시황은 러-우 전쟁의 영향 지속으로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수출선이 인도, 중국 등으로 길어지고 유럽의 에너지 수입선 역시 중동, 미국 등으로 길어지며 해운수요 증가 추이 지속
- 벌크선의 경우 신조선투자가 2015년 이후 약세를 보이며 신규 선박공급 압력이 낮은 상태이나 수요 역시 약세를 보이며 코로나 특수 영향이 남아있던 전년도에 비해 운임이 크게 하락하며 다소 부진한 양상
- 10월까지 평균 BDI는 1,242.6으로 전년동기 대비 39.1% 낮은 수준을 기록
- 컨테이너선 시장은 세계 교역량 둔화의 영향으로 해운수요 증가율이 전년대비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2021년 대량 발주된 신조선복이 대거 인도되며 급격한 운임하락이 나타나는 부진을 겪고 있음
- 10월까지 평균 CCFI는 952.9로 전년동기 대비 69.0% 낮은 수준
- 탱커 시장은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 수요측 악재에도 불구하고 교역노선의 원거리화로 2023년 중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 10월까지 평균 31만dwt급 VLCC 1년 정기용선료는 1일당 40,179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3.9%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벌크선 시장은 중국과 신흥국의 저성장과 투자부진 등으로 해운수요의 개선 기대감은 낮으나 최근 수년간의 적은 신조선 발주량과 환경규제에 의한 폐선 증가 기대로 향후 약 3년간 BDI 1,000~2,000 수준의 시황 유지 전망
- 컨테이너선 역시 환경규제에 의한 많은 폐선 기대감과 세계 교역량도 점진적 회복 예상에도 불구하고 '21~'23년의 많은 신조선 발주량으로 선박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며 2026년까지 어려운 시황이 지속될 전망
- 다만, 코로나19 특수로 선사가 많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는 약한 수준으로 예상됨



- 탱커시장은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으로 현재 형성된 원거리 교역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수년간 탱커 신조선 발주량이 적어 감산 등 해운수요 악재가 다소 지속된다 하여도 비교적 양호한 시황 유지 전망

□ (경쟁력) 국내 선사들의 경우 대형 선사의 수가 적고 대부분 중견 이하급 중소형 선사의 비중이 높으며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은 점진적 개선 기대

-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에서 HMM은 3.1%의 점유율로 8위에 올라있음 (연초기준)
- 탱커시장에서는 장금상선이 총 1,017만dwt(세계 선복량의 1.5%)의 선복을 보유하여 10위에 올라 있으며 그 외 50위 이내 국내 선사는 없음
- 벌크선 시장에서는 팬오션이 1,161만dwt(세계 선복량의 1.2%)의 선복 보유로 8위에 올라있고 H라인이 802만dwt(세계 선복량의 0.8%)로 18위에 올라있으며 그 외 50위 이내 선사는 없음
- 국내 선사들의 경우 중견 이하급 중소선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과거 중고선 투자 관행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 수년간 신조선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

□ (이슈 및 리스크) 해운업 단기적 리스크는 세계 경기의 움직임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 리스크는 해상탄소중립 요구에 따른 규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선사의 대응이 될 것임

-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드라이 벌크선 시장의 경우 세계적인 경기호전과 투자 개선이 시황 호전의 관건이 될 것이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시황이 더욱 악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음
- 컨테이너선 시장의 경우 많은 선복 공급으로 점진적 경기호전이 시황 악화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탱커 시장의 경우 경기 변동에 따른 석유수요 변동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주요 산유국의 감산 지속 여부와 감산량, 유럽과 러시아의 정치적 화해에 의한 에너지 교역 재개 가능성 역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세계 해상탄소중립 요구의 강화로 규제가 강화되며 선사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점과 선사의 대응 전략에 따라 연료 선택의 패착으로 시장에서의 실패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해운 평균 운임지수 현황 및 전망

단위: 용선료는 \$/day, 지수,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BDI	2,943 (176.1)	1,934 (△34.3)	1,243 (△39.1)	1,310 (△32.3)	1,250 (△4.6)	1,200 (△4.0)	1,400 (16.7)
CCFI	2,616 (165.7)	2,792 (6.8)	953 (△69.0)	920 (△67.1)	870 (△5.4)	820 (△5.7)	800 (△2.4)
탱커용선료	20,932 (△47.4)	25,644 (22.5)	40,179 (83.9)	39,700 (54.8)	39,000 (△1.8)	37,500 (△3.8)	36,000 (△4.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탱커 용선료는 310K급 VLCC 기준

자료: Baltic 해운거래소, Clarkson, 상해항운교역소,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해외건설

□ (글로벌 트렌트) 202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15.4조 달러 예상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6.7%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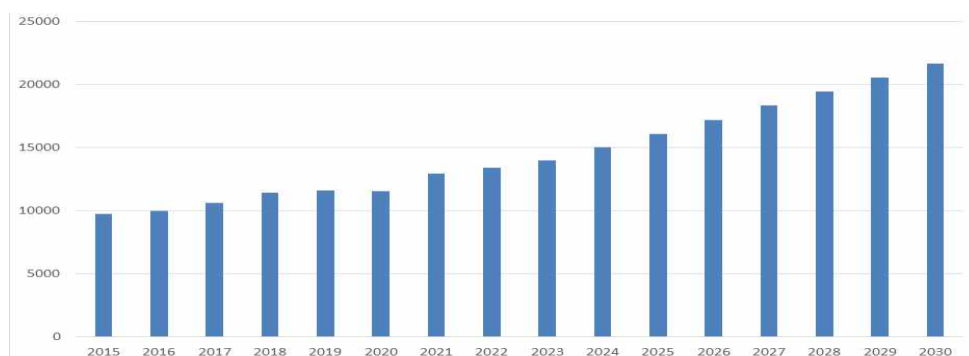
-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는 회복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완전한 성장세에 도달할 전망
- 202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5% 성장한 15.4조 달러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은 2024년 이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
- 2030년 세계 건설 시장규모는 22조 달러에 달해 2024년 대비 42.9% 증가할 예상돼 세계 건설시장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국내외 경쟁력) 2021년 글로벌 Top 250 기업 중 중국 기업의 매출액은 1,129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스페인 518억 달러, 프랑스 504억 달러, 미국 241억 달러, 한국 227억 달러 순

- 2021년 글로벌 건설사 매출기준 한국은 5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5.7%를 기록
- 2018년 24.4%였던 중국의 점유율은 2021년 28.4%로 증가해 우리 기업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

세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 (수주액) 2024년 수주액은 38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5년 400억 달러 전망

- 2023년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 및 북미지역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 목표액 350억 달러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9월까지 중동 수주액은 80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1% 증가했으며, 북미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185% 증가한 74억 달러
-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110억 달러, 건축 90억 달러, 토목 1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 47.5%, -64.4% 증가
-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으로 2025년 이후 중장기 수주액은 4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원전 및 네옴시티 등 2024년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 건설시장도 전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대외 상황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주택건설 시장이 침체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중심이 내수에서 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 (이슈 및 리스크)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친환경 인프라가 부상

-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세계 주택시장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후변화 이슈 및 개도국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수요가 글로벌 건설시장 성장을 이끌 전망
- 글로벌 금리 인상 지속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지속은 세계 건설산업의 최대 리스크 요인
-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건설비용 증가로 이어져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프로젝트 발주를 지연시키는 요인

해외건설 수주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1~10월	전망			
수주액	306 (△12.8)	310 (1.3)	256 (3.6)	350 (12.9)	380 (8.6)	400 (5.3)	420 (5.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인프라

□ (글로벌 트렌드) 2024년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5.3조 달러, 2030년 7.9조 달러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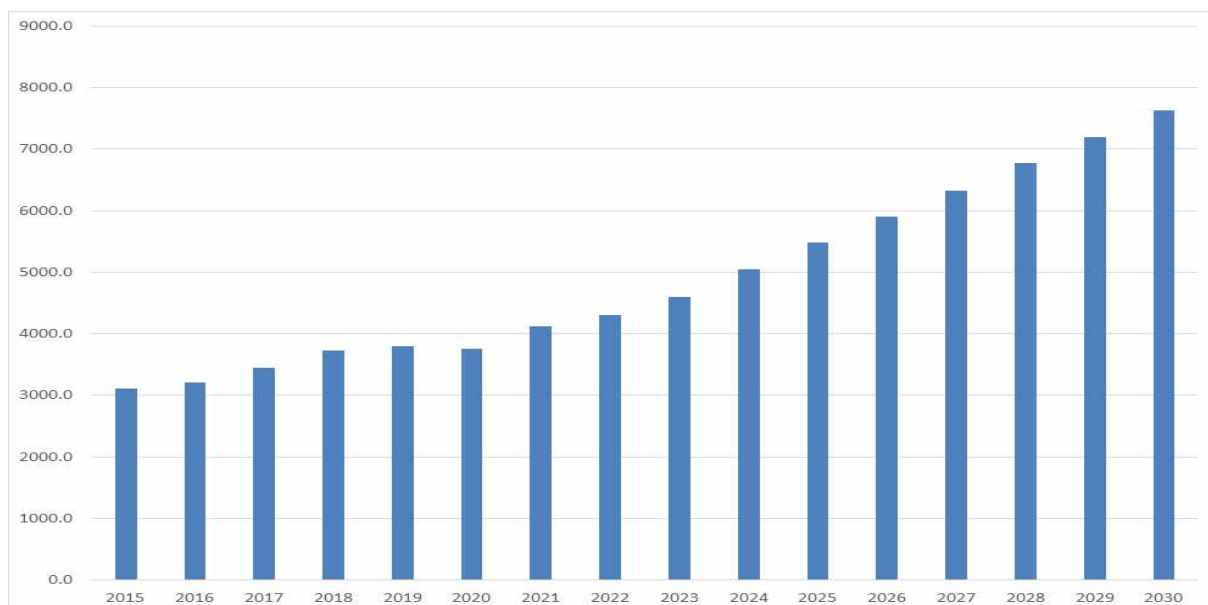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세계 건설시장에서 인프라 시장 비중은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시장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건설시장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중
- 2025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5.74조 달러, 2030년 7.94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2022년 이후 연평균 7.4% 성장해 인프라 시장은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기존의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이슈와 맞물리면서 친환경 인프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외 경쟁력) 2021년 인프라 분야 글로벌 Top 10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발전분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유일

-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개발 및 금융조달 역량이 중요한 인프라 분야는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세계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 (수주액) 2024년 수주 전망치는 120억 달러이며, 중장기적으로 150억 달러 전망

- 2023년 9월까지 인프라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37% 감소한 49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도로 등 토목 및 발전분야 수주가 부진
-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분야 수주가 부진한 상황이며, 재생에너지로 재편되고 있는 발전분야 수주 역시 전년동월 대비 38% 감소
- 2024년 수주 예상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20억 달러 예상, 글로벌 인프라 시장 확대로 중장기 수주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인프라 수주액은 기저효과 및 원전 등 대형 발전소 수주 가능성으로 20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슈 및 리스크) 해외건설 수주 확대는 위해선 인프라 분야 사업개발 및 금융조달 등 역량 강화가 필요

- 석탄 발전소 발주가 급감하는 등 글로벌 발전 플랜트 발주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전기 및 자율자동차 등장으로 현재의 교통 인프라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변경 및 교체될 것으로 예상
- 인프라 수주를 위해선 과거와 같은 시공 위주의 전략으로는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분야에 대한 수주 전략 변화가 필요
- 올해 9월까지 수주액 235억 달러 중 사업개발 프로젝트 금액은 8억 달러에 불과,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선 사업 개발 및 운영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

인프라 수주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1~10월	전망			
수주액	129 (△13.7)	108 (△21.2)	55.3 (△45.4)	90 (△16.7)	120 (33.3)	140 (16.7)	150 (7.1)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인프라 수주액은 도로·교통·항만·공항 등 토목분야와 발전, 담수, 전기시설로 구성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나. 첨단 전략산업

(1) 반도체

□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반도체산업은 2023년 5,380억 달러에서 2027년 7,590억 달러로 연평균 9.0% 성장 전망, PC·모바일·서버에 이어 AI가 수요를 견인하면서 향후 3~4년간 성장을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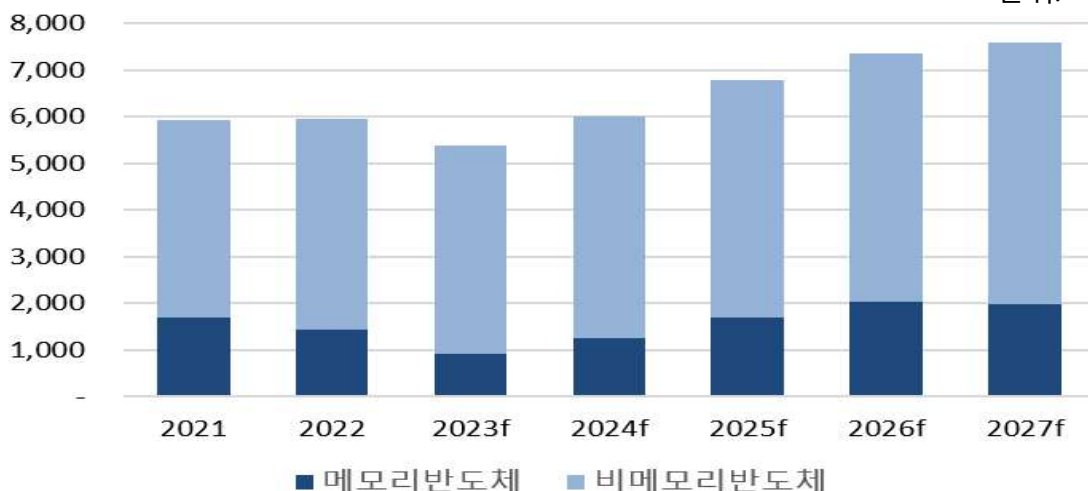
-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23년 922억 달러에서 '27년 1,978억 달러로 연평균 21.0% 성장 전망
-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은 '23년 4,457억 달러에서 '27년 5,612억 달러로 연평균 5.9% 성장 전망
- 2024년 반도체시장은 전년 대비 11.7%, 메모리반도체는 전년 대비 35.5%, 비메모리반도체는 6.8% 성장 전망
- 주요 기업들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PC 등 IT기기가 On-Device AI를 지원할 전망
- 인텔은 2024년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CPU 메테오레이크 출시 예정

□ (경쟁력)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국이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수준

-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22)은 60%이나 시스템반도체는 AP, DDI(디스플레이구동 칩) 등 일부 품목에서만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점유율은 3% 수준
- 한국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대만(66%)에 이어 17%로 세계 2위이나 시장점유율 확대는 기록하지 않은 상황

반도체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 옴디아

□ (수출) 2024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0.0% 증가한 1,17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되며 향후 3년간 수출 증가 전망

- 2023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4.6% 감소한 975억 달러 내외로 전망
 - 반도체 수출은 인플레이션,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 가격하락 등으로 큰 폭 하락
- 반도체 수출은 2024년에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고 향후 3년간 성장세 지속 전망
 - 메모리반도체는 감산효과가 본격화되고 AI 인프라 투자 등이 증가하면서 수요와 가격이 회복될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한국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크며, 우리기업은 중국 생산·수출 비중이 높아 대외 리스크가 큼

- 시스템반도체와 소부장(국산화율 30%)의 경쟁력이 낮고, 주요국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파운드리 경쟁이 심화될 전망
 - 파운드리에는 삼성전자와 TSMC의 점유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본격화로 세계 2위 경쟁 심화 예상
 - * 파운드리 시장점유율(23.2분기) : TSMC 56.4%, 삼성전자 11.7% (트렌드포스)
- 미국의 대중 장비 수출통제, CHIPS Act 등으로 우리기업의 중국공장과 중국사업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

반도체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출액	1,280 (29.0)	1,292 (1.0)	781 (△30.1)	975 (△24.6)	1,170 (20.0)	1,365 (16.7)	1,435 (5.1)

주: 1) MTI 831 기준

2)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리튬이차전지

□ (글로벌 트렌드) 2024년 글로벌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수요는 1,025GWh, 2030년 2,993GWh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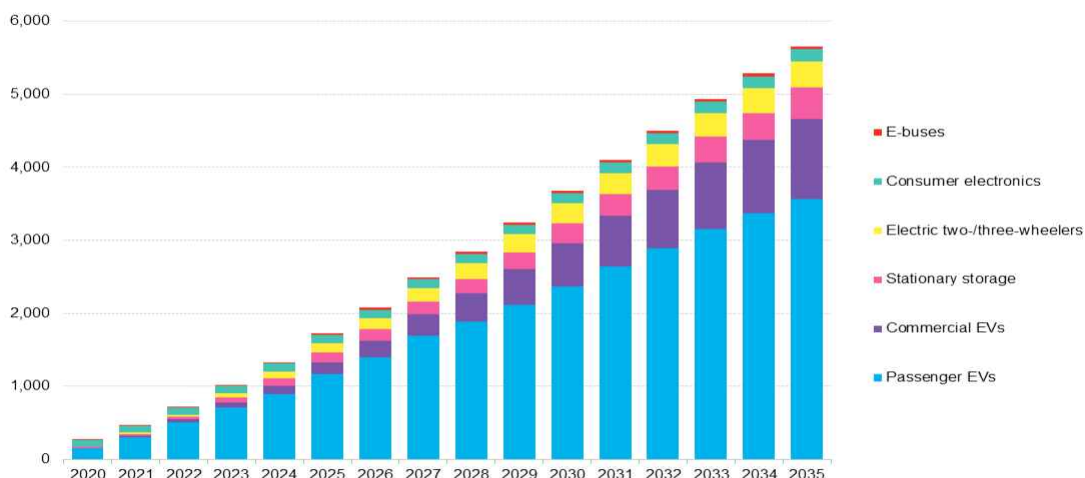
- 2023년 분야별 리튬이차전지 수요는 전기자동차용 790GWh, IT기기용 104GWh, 에너지저장용 67GWh, 기타 61GWh로 전기자동차용 수요가 전체 리튬이차전지 수요의 77%를 차지
- 2030년 리튬이차전지 수요는 3,675GWh이며, 전기자동차용 수요는 2,994GWh로 2030년 전체 리튬이차전지 수요 중 81%를 차지
- 리튬이차전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핵심 요인은 가격이며,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이 동일해 지는 Price Parity 도달 후 리튬이차전지 수요는 급증할 전망
-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Price Parity 도달을 위한 리튬이차전지 가격은 \$100/kWh

□ (국내외 경쟁력) 2022년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판매량 기준 기업 순위는 CATL, LG엔솔, BYD, 파나소닉, SK온 순

- 2023년 상반기 중국시장 판매를 제외한 기업별 판매량(GWh)은 LG엔솔 41.1, CATL 38.9, 파나소닉 22.7, SK온 15.8, 삼성SDI 12.5, BYD 2.3, PPES 1.9
- 한국 기업 점유율은 중국시장 포함 시 시장점유율은 22%에 불과하지만, 중국시장을 제외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54.4%로 상승

글로벌 배터리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GWh



자료: BNEF



□ (수출) 2024년 수출액은 75억 달러로 예상,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수출은 제한적이어서 중장기 수출은 현재 상황에서 정체될 전망

-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수출은 현지에서 주로 생산되어 수출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수출액의 대부분은 핸드폰 등 IT기기용 소형 리튬이차전지
- 단가가 비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현지 자동차 업체들의 수요 대응 및 세금공제 효과 때문에 생산기지가 외국에 위치한 관계상 매출 대비 수출 기여도는 매우 적은 상황
- 2024년 수출액은 전년 수준인 75억 달러 예상되며,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의 수출 기여가 적어 중장기 수출은 현재에서 정체될 전망
- 리튬이차전지 가격 하락 지속 및 현지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튬이차전지 수출은 정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수출액은 2023년 150억 달러, 2024년 200억 달러 예상

□ (이슈 및 리스크) 리튬이차전지 공급과잉 및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2023년 기준 글로벌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공급용량은 1,881GWh이며, 공격적인 증설 경쟁으로 현재 공사 중인 물량을 포함할 경우 생산용량은 5,117GWh로 증가, 이는 2030년 수요 2,993GWh 대비 1.7배 많은 물량
- 중국은 가격 및 안정성이 강점인 LFP 양극재를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주 무기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NCM 양극재를 적용해 높은 에너지밀도 및 주행거리 등 기술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리튬이차전지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중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리튬이차전지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1~10월	전망			
수출액	57.6 (18.1)	73.4 (27.5)	56.5 (△3.1)	75 (2.2)	75 (0)	80 (6.6)	80 (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태양광

□ (글로벌 트렌드) 2024년 글로벌 태양광시장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444GW, 2030년 706GW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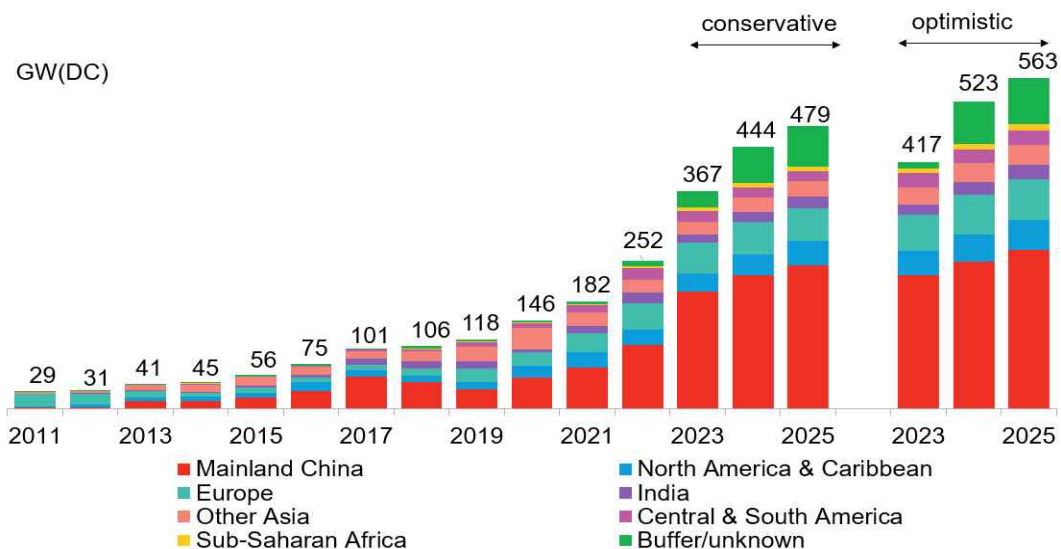
-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전년 대비 45.6% 증가한 367GW로 예상되며, 2024년에도 두자릿 수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
- 2024년까지 급성장했던 글로벌 태양광 시장도 2025년부터 서서히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모든 발전원 중 태양광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해짐에 따라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급증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기조 및 태양광 발전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은 글로벌 발전산업에서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

□ (경쟁력) 모듈 생산량 기준 2020년 3위였던 한화솔루션은 2023년 13위

- 폴리실리콘에서 모듈까지 글로벌 태양광 제품 생산의 80%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 잉곳&웨이퍼는 중국 기업 점유율이 98%에 달해 중국 기업들의 웨이퍼 공급 없이는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

글로벌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GW



자료: BNEF

□ (수출) 2024년 수출액은 19억 달러로 예상되나,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 남에 따라 태양광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정체될 전망

- 2023년 8월까지 태양광 수출액 8.5억 달러 중 미국향 수출 비중은 97.6%
- 중국산 태양광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중국산 제품 수입을 막고 있는 미국시장을 제외하고 수출이 어려운 상황
- 2024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9억 달러 예상, 미국 현지 생산 증가로 2025년을 정점으로 수출액은 감소할 우려가 존재
- 2024년 미국 태양광 시장은 전년 대비 15%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향 태양광 수출은 2024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이후 한화솔루션의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될 경우 태양광 수출액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슈 및 리스크) 미국 IRA 시행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

-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전 밸류체인에 걸쳐 독점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대규모 세금공제 제도를 통해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건설을 통한 판로를 확보해 나가고 있음
- 연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규로 건설하고, 현재 연 생산 능력이 1.7GW인 모듈은 생산라인 추가 증설을 통해 8.4GW로 확대
- 2025년부터 한화솔루션 잉곳·웨이퍼, 태양전지 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면 세금공제액은 2023년 1,590억에서 2025년 6,9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태양광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1~10월	전망			
수출액	11 (△18.1)	16 (43.7)	9.3 (△18.4)	13 (△16.1)	12 (△7.7)	11 (△8.3)	10 (△9.1)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태양광 수출액은 태양전지 및 모듈(8541430000) 수출액 합계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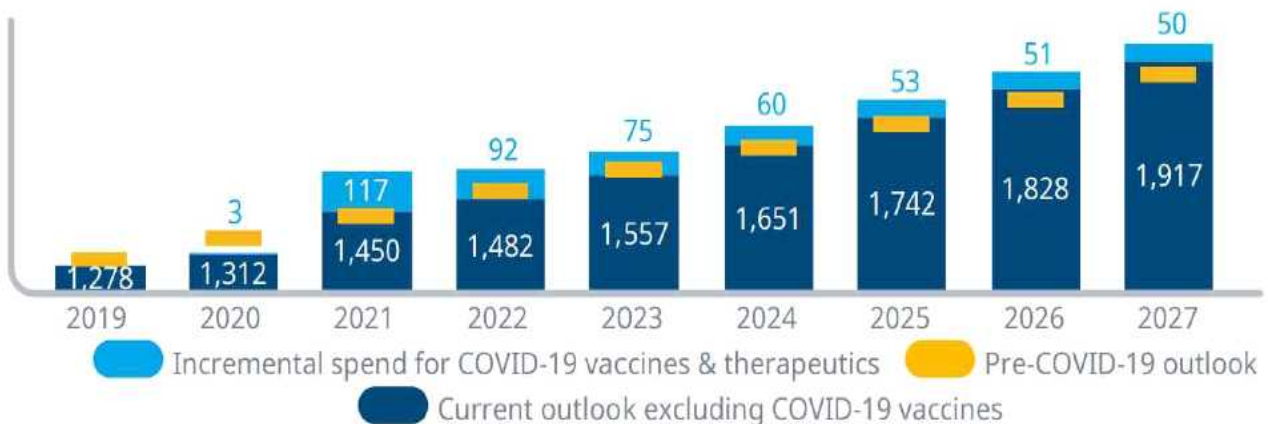
(4) 바이오

□ (글로벌 트렌드) 세계 의약품 시장은 향후 연평균 5%로 성장하여 2022년 1조 4,820억 달러에서 2027년 1조 9,170억 달러 예상, 코로나 이전으로 시장이 회귀하는 추세이며 제약업체와 AI간 협력이 확대 중

-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19로 성장성 변동폭이 컸으나, 향후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세로 회귀하여 3~6% 성장률로 증가할 것
- 의약품 시장은 북미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나 향후 성장률(2.5~5.5%) 둔화가 예상되며 2027년까지 남미와 인도 시장의 성장률(7~10.5%)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
- 항암제 분야가 2027년까지 13~16%의 높은 성장률로 확대되며, 면역질환, 당뇨병 분야가 그 뒤를 이을 전망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변동성이 심하던 의약품 시장 성장률이 2024년까지 대유행 이전의 예상 비율로 회귀할 전망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시장은 7년간 누적 총 4,970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누적 의약품 시장 규모의 약 3%에 해당
- 제약회사와 인공지능(AI) 기술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
- AI 및 기계학습(ML)의 적용은 약물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질병 병리학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여 약물 효능을 높이고, 임상시험 설계까지 확장 중

글로벌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QVIA(2023), 바이오인 재인용

□ (경쟁력) 2022년 한국 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중 1.6% 차지

- 2022년 한국 의약품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29조 8,59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9년 24조 3,100억 원까지 확대된 이후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3조 1,722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021년 25조 3,932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에는 29조 8,595억 원으로 17.6% 급증
- 최근 국내시장 규모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세계 의약품 시장 중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 수준에 불과

□ (국내 수출) 2024년은 올해 대비 약 5% 상승한 80억 달러, 이후 바이오시밀러 부문 경쟁 심화로 수출 증가율 둔화 전망

- 2023년 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8% 하락한 76억 달러 예상
- 의약품 중 최근 바이오시밀러 수출과 CMO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바이오의약품의 2022년 수출액은 27억 8,593만 달러(3조 6,000억 원)로 2021년 15억 8,738만 달러(1조 8,169억 원) 대비 75.5%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 경신
- 하지만 2023년 들어 글로벌 빅파마 간 경쟁 심화로 인한 의약품 수출단가 하락,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백신 및 방역물품 수요 감소 등으로 국내 의약품수출액 감소
- 2024년 의약품 수출은 올해 대비 약 5% 상승한 80억 달러가 예상되며 경쟁 심화로 2026년까지 수출액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국내 의약품 산업은 글로벌 신약이 부재하고, 상대적 진입장벽이 낮은 바이오시밀러 중심 구조로 글로벌 경쟁 심화 우려

-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향후 몇 년간 두 자릿수 글로벌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2030년에는 현재 시장가치의 3배가 넘는 740억 달러 예상(McKinsey & Company, 2022)

의약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출액	84.9 (20.5)	104.8 (23.5)	63.7 (△30.7)	76.0 (△27.5)	80.0 (5.3)	82.5 (3.1)	85.0 (3.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5) 미래모빌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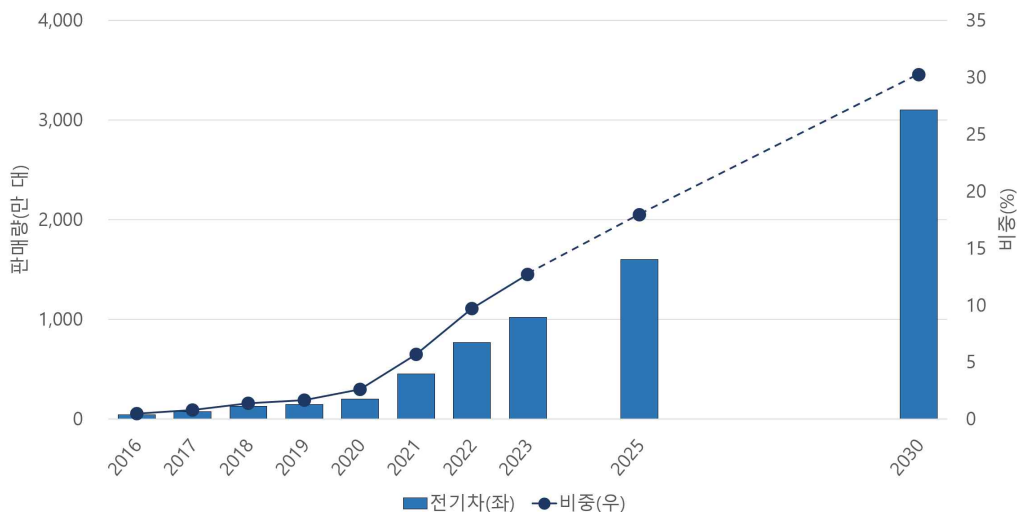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전기자동차가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나 고금리, 인플레이션 속에서 일부 국가는 친환경 정책을 완화하는 등 성장세는 둔화할 전망

- 전기자동차 시장은 중국, EU, 미국 등 몇 개 시장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인도, 아세안, 호주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등 판매량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전기자동차는 성장기로 '19년 판매량 149만대에서 '22년 775만대로 연평균 73.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30년까지는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보이며 연평균 3,000만대를 돌파할 전망
-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나 영국의 내연기관 판매금지 시기 연기, 스웨덴의 친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 등 친환경 정책 완화 기조 등 성장세는 둔화할 전망

□ (경쟁력) 2022년 국내 자동차 기업은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의 4.3%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이어 판매량 6위 유지

- '22년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자동차 주요시장인 미국과 EU28에서 각각 판매량 3위, 5위로 7%, 1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 확대 중
- BYD, SAIC, Geely 등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에 따라 가격경쟁 및 차별화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 전망



자료 : MarkLines, IEA



□ (수출) 2024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대비 29.0% 증가한 178억 달러로 전망되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3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판매호조, 수출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인 1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23년 전기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 대비 51.4% 늘어난 34만대 추정
- '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평균 수출단가는 '22년 상반기 대비 5.1% 상승하며 수출액 증가에 기여
- 한국의 전기자동차 수출에서 유럽과 미국의 비중은 49.7%, 37.5%으로 대부분을 차지
-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한국의 전기자동차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아세안, 인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확대도 기대됨

□ (이슈 및 리스크) 미국의 IRA, 프랑스의 탄소배출에 따른 보조금 등 자국 중심 정책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IRA로 인해 국내 전기자동차는 미국에서 상업용 판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음
- 프랑스는 '24년부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해상운송에 따른 배출량이 포함되어 국내 수출 차량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 프랑스의 보조금 정책에 따른 유럽 시장의 영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전기자동차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출액	56 (44.7)	82 (44.7)	115 (83.4)	138 (68.8)	178 (29.0)	217 (21.9)	258 (18.9)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전기자동차는 MTI 74140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로봇

□ (글로벌 트렌드) 세계 로봇산업은 2020년 250억 달러에서 2030년 1,600억 달러로 연평균 20% 성장 전망, 성장잠재력은 풍부하나 대중의 기대 수준과 로봇 능력과의 격차 등으로 로봇 대중화는 5~10년 후로 예상

- 인구고령화, 인건비 상승, 로봇 가격하락, 위험업무 등이 로봇 도입을 촉진하면서 로봇산업 성장의 축이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이동할 전망
- 세계 로봇산업은 2020년 약 250억 달러로 산업용 로봇이 54%, 서비스용 로봇이 46%
- 로봇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도입되면서 Reference를 구축하는 단계로 산업용 로봇, 로봇청소기 외 대부분 로봇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함

□ (경쟁력) 미국, 유럽, 일본기업이 산업용 및 서비스용 로봇산업을 주도

- 산업용 로봇은 화낙(일), ABB, Yaskawa(일), Kuka(독, 중국기업이 인수), Kawasaki 중공업(일)의 과점구조로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60%
-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현대로보틱스의 시장점유율('21)은 2%, 인간과 로봇이 동일 공간에서 일하는 협동로봇 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의 시장점유율('21)은 5%
- 서비스 로봇은 물류로봇, 로봇청소기 등으로 미국이 주도하며 로봇의 핵심 부품은 일본, 소프트웨어는 미국기업이 지배적인 사업자

로봇산업 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천대



자료 : Boston Consulting,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 (수출) 2024년 로봇 수출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5.6억 달러 내외로 전망되며 향후 3년간 수출 증가 전망

- 2024년 로봇 수출은 주요국의 반도체, 전기차 투자 확대 등으로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증가 전망
- 중장기 로봇 수출은 대기업 등의 로봇사업 강화 등으로 점진적 증가 전망
 - (현대차그룹) 5대 신사업중 하나로 로봇을 선정하고 2040년 사업 포트폴리오를 자동차 중심에서 자동차 50%, UAM(Urban Air Mobility) 30%, 로봇 20%로 변화 추진
 - (LG전자) 국내외 로봇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서비스 로봇 사업 등을 추진
 - (삼성전자) 국내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에 투자, 웨어러블 로봇 사업 등 추진 계획

□ (이슈 및 리스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기술력, 가격경쟁력 등의 제고 필요

- 우리기업은 기술의 사업화 등이 부족하여 내수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중으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기술력, 내구성, 가격경쟁력 등의 제고 필요
 - 로봇기업은 대부분 기술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모델 수립, 마케팅 역량 등이 미흡하여 기술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의 스마트 제조로봇과 서비스로봇 기술은 각각 최고 기술보유국인 EU와 미국 대비 80%~84% 수준이며 부품 기술은 일본 대비 약 70% 수준
 - 국내기업의 서빙 로봇 가격은 중국기업 제품 대비 15~30% 이상 높으며, 업계에서는 국내 물류로봇, 서빙로봇의 중국기업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추정

로봇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출액	3.8 (26.1)	4.0 (7.1)	3.9 (21.8)	4.9 (22.0)	5.6 (12.5)	6.1 (10.0)	6.7 (9.0)

주: 1) HS코드 847950(산업용 로봇), 842710(포크리프트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운송 차량), 842870(기타 무인운반로봇), 8508111000(로봇청소기) 기준

2)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다. 주력 수출산업

(1) 일반기계

□ (글로벌 트렌드) 미국과 중국의 산업투자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됨

- 8월까지 미국의 비국방 자본재 구입액(항공기 제외)은 5,88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 전년도 같은 기간의 구입액은 5,773억달러로 '21년 동기대비 7.8%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 8월까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2%로 발표되어 전년 같은 기간 5.8%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나, 2차산업 투자증가율은 8.8%, 제조업 투자증가율은 5.9%로 집계되어 기계산업 관련 투자지표는 양호한 수준임
- 세계 최대 산업투자국인 미국과 중국의 자본재 투자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반기계 시장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됨

□ (수출) 일반기계 수출액은 2024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 지속 전망

- 10월까지 일반기계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한 438.6억달러
- 10월까지 40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품목 중 전년동기 대비 원동기 및 펌프는 8.5%, 건설광산기계는 6.8%, 기계요소는 1.7%, 기타기계류는 6.0% 각각 증가
- 10월까지 대미 수출은 총 97.4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73.6억달러로 동 기간 15.9% 감소하여 일반기계의 수출 둔화는 주로 대중 수출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있었으나 부동산이나 서비스업 투자 대비 제조업 관련 투자는 양호한 수준이므로 중국 경제 부진보다 중국의 자체 개발에 따른 국산화율 제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됨
- 향후 일반기계 수출은 선진국 및 신흥국의 완만한 성장률 회복 기조에 따라 연간 3% 이내의 완만한 수출 증가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산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중국내 국산화 개발과 미국의 투자증가율 둔화 등으로 추정

-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에 대한 리스크는 대중 수출감소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와 대미 수출증가 역시 지속 가능할 것인지 여부임
- 미국과 중국은 일반기계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임
- 국내 기계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대중 수출 감소는 중국내 국산화를 제고에 따른 수입 대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는 향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외교관계 변화에 따른 정치적 요인이 일반기계 대중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 파악하기 어려움 저는
- 미국은 현재 경기둔화를 감수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미국 내 투자증가 추세 지속을 확신할 수 없으며 대미 수출 역시 증가추세 지속을 확신하기 어려움

일반기계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출액	501 (9.5)	511 (2.0)	439 (3.9)	525 (2.7)	540 (2.9)	555 (2.8)	570 (2.7)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석유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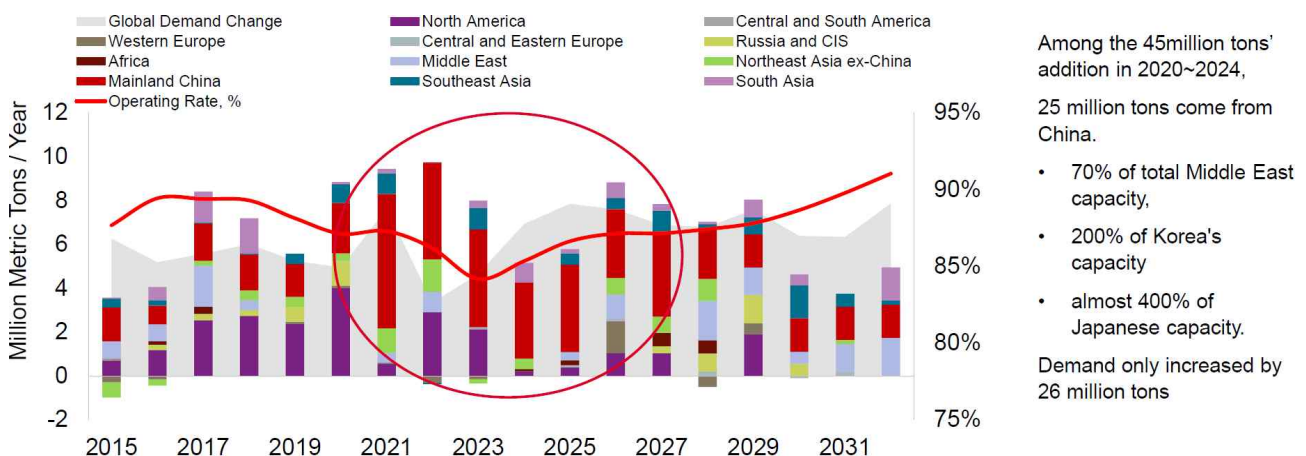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장기 불황 우려

-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등 경기회복세 부진에 따른 수요부진과 역내 공급능력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다년간 지속되는 등 불황 장기화 우려 확대
- 중국이 2020~2021년을 기점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제품 중심의 자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등 2025년 중국 주요 기초유분 자급률의 100% 상회 전망 등 중국이 석화제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중
- 또한 국내 정유사들도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석화사업 확장 등 2020~2023년에 집중된 역내 에틸렌 공급능력 증설에 따른 기초유분의 공급과잉 상황이 심화/장기화 전망

□ (경쟁력) 2022년 한국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1,280만 톤(세계 에틸렌 생산능력 중 5.9% 차지)으로 중국, 미국, 사우디에 이은 4위 국가

- (원가경쟁력) 국내 설비는 북미, 중동의 에탄크래커 설비 대비 원가경쟁력 열위에 있는 나프타크래커 설비 중심으로 유가 급등 시 원가 부담 확대
- 미국과 사우디는 석화제품의 원료로 에탄 비중이 81%, 64%로 가장 높으며 중국은 나프타(51%) 외에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나프타 비중이 82%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유가 급등에 취약한 구조
- (제품 포트폴리오) 한국은 중국의 자급률 제고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기초유분 등 범용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보유

에틸렌 공급능력 vs 수요 증감 추이 및 전망



자료: S&P Global(2023)



□ (수출) 2024년은 올해 대비 약 2% 상승한 460억 달러 예상, 이후 수요둔화 우려 및 중국 자급률 확대 등으로 수출증가율 둔화 전망

- 2023년 하반기 유가상승 및 설비 가동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 상황으로 수출단가 하락세가 이어지며 수출 감소세 지속
- 2024년 중국 경기회복 등으로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상존하며, 자급률이 높아진 중국내 설비의 우선적 가동 예상에 따라 국내 업체의 수출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으로 2026년까지 수출 증가율 둔화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장기 수요 둔화 및 역내 공급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 (수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 강화로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둔화
- (공급)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기초유분 등의 자급률 제고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 심화 우려

중국의 주요제품별 자급률 전망



자료: 블룸버그 등, NICE(2023) 재인용

석화제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출액	551 (54.8)	543 (△1.4)	381 (△19.1)	450 (△17.2)	460 (2.2)	470 (2.2)	480 (2.1)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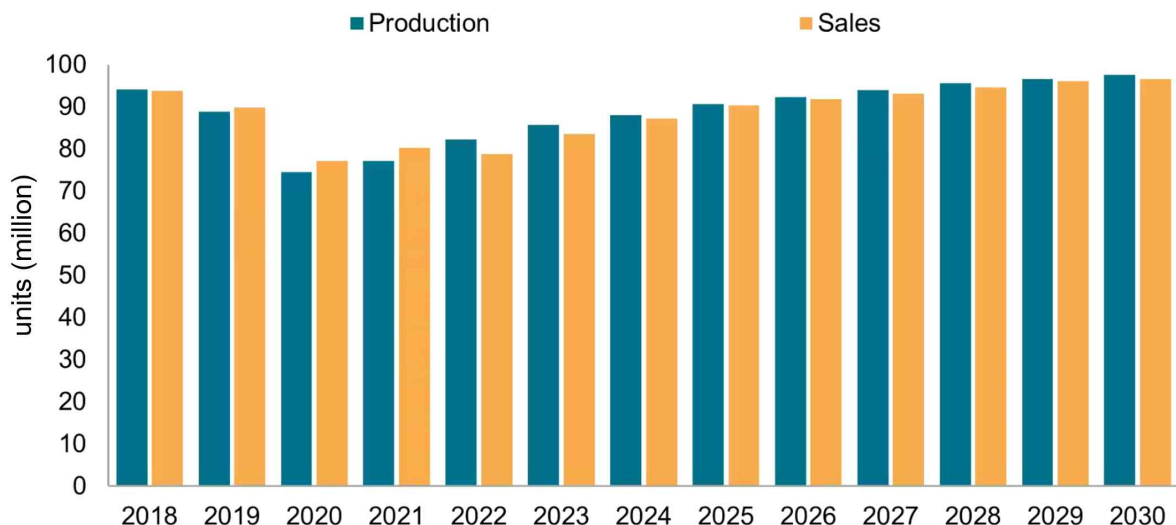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팬데믹, 반도체 공급난으로 감소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25년 경 완전히 회복될 전망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3년 판매량은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5.6% 늘어난 8,4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팬데믹에 이어 반도체 공급난에 인한 생산차질로 팬데믹 이전('19년)의 85~90%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3년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며 판매량이 증가할 전망
- 자동차 판매량은 회복기로 팬데믹, 반도체 공급난 영향에 의한 대기수요 등 꾸준히 증가할 전망

□ (경쟁력) 2023년 국내 자동차 기업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8%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유지할 전망

- '22년 현대차그룹은 반도체 공급난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전 세계 판매량 3위를 달성하였으며 '23년에도 3위를 유지할 전망
- 현대차 및 기아의 '23년 매출액은 판매량 증가,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차량 비중 확대 등으로 각각 역대 최고인 160조원, 100조원 달성 전망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전망



자료 : S&P Global Mobility



□ (수출) 2024년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023 대비 6.9% 증가한 973억 달러로 전망되며 글로벌 자동차 수요회복에 따라 증가세 지속 전망

- 2023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0% 증가한 675억 달러이며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235억 달러로 추정
- '23년 자동차 수출액은 평균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출액 비중 확대 및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차질이 완화 등으로 역대 최고치 달성 전망
- '23년 상반기까지 자동차의 수출 평균단가(22,714달러)는 전년동기 대비 8.7% 상승
- 수출 평균단가가 높은 친환경차(31,777달러)의 비중은 '21년 25.1%에서 '22년 29.3%, '23년 1~8월 34.7%까지 확대
-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차량의 비중 확대 및 전 세계 자동차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액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장기간 지속된 인플레이션 및 높은 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 GlobalData, S&P 등에 따르면 팬데믹, 반도체 공급난으로 줄어든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회복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 등 수요 둔화 요인 존재

자동차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자동차 수출액	465 (24.2)	541 (16.4)	580 (33.9)	675 (25.0)	736 (8.9)	797 (8.3)	856 (7.4)
자동차부품 수출액	228 (22.2)	233 (2.4)	193 (△1.1)	235 (0.8)	237 (0.9)	241 (1.7)	244 (1.2)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철강

□ (글로벌 트렌드) 세계 조강생산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철강재 가격은 전년대비 하락 추세이나 '24년부터 소비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0월까지 세계 조강생산량은 15억 6,730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에 그침
 - 동 기간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한 8억7,470만톤, 2위 인도는 12.1% 증가한 1억 1,630만톤을 생산하였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 나머지 대부분 주요국들의 생산량이 감소하며 생산증가율은 정체 상태를 나타냄
- 동아시아의 열연코일 수출가(CFR)는 10월까지 평균 톤당 633.2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6% 하락
 - '21년 이후 중국이 환경개선을 이유로 감산하며 철강재 가격이 급등함
 - '22년에는 중국의 감산유지 등으로 세계 조강생산량이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나 소비도 3.2% 감소하여 철강재 가격은 다소 하락
- WSA(세계철강협회)는 '23년과 '24년에 철강재 소비가 각각 2.3%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23년 철강재 생산은 정체상태이나 '24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철강재 소비 증가는 주로 인도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경쟁력) 한국은 10월까지 세계 조강생산량의 3.6%를 생산하였으며 2개 철강사가 생산량 기준 20위 이내에 올라 있음

- 한국 철강업계는 10월까지 5,590만톤을 생산하여 세계 조강생산량의 3.6%를 차지하며 세계 6번째 철강국가의 위치를 유지함
- 2022년 생산량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는 3,648만톤(세계 생산량의 2.0%)을 생산하여 세계 7위에 올랐고 현대제철은 1,877만톤(1.0%)으로 18위를 기록



□ (수출) 철강재 수출은 수요의 소폭 개선에도 가격하락과 중국의 증산으로 향후 수년간 소폭 증가와 소폭 하락이 반복되는 흐름 전망

- 세계 철강협회의 세계 철강재 소비가 증가추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증산으로의 전환과 철강재 가격하락 등의 요인으로 철강재 수출은 '23년 들어 전년동기 대비 감소추세임
- 10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한 298.3억 달러
- IMF는 향후 3년간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24년 1.4%에서 '26년 1.9%까지 다소 낮은 수준에서 개선되고 신흥국 역시 '24년 4.0%에서 '26년 4.1%까지 저성장 국면에서 완만한 개선을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철강재 수요 역시 완만한 개선세가 예상되나 중국의 생산량이 점차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고 이로 인한 철강재 가격하락으로 국내 철강 수출액은 정체 상태 또는 소폭 감소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산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철강재 가격 하락, 세계 경제 저성장 등으로 추정

- '21년 중국의 감산으로 모든 철강재 가격이 급등한 이후 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중국의 철강재 생산량 증가 전환 등으로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음
- 아직 철강재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하락한 것은 아니나 점진적인 하락은 수출액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저성장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개선될 것인지 혹은 악화될 것인지 여부 역시 중요한 리스크 요인임

철강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출액	364 (36.9)	385 (5.7)	298 (△8.5)	350 (△9.0)	360 (2.9)	350 (△2.8)	360 (2.9)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5) 석유제품

□ (글로벌 트렌드) 급격한 공급과잉 전환 가능성은 낮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 시 수급 상황 악화 가능성도 존재

- (공급) 2023년 이후 중국 등 글로벌 정제설비 신증설 설비의 가동개시로 수요 우위 추세가 점차 완화될 전망
 - 2023년부터 중국 및 중동 국가의 신증설 설비가 순차적으로 가동개시되며 글로벌 공급량이 확대될 전망
 - 다만, 선진국 중심의 노후화된 설비 폐쇄와 정제설비의 바이오 제품 생산으로의 용도 전환 등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20만 b/d 증가 수준에 그치며 급격한 공급과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수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유 및 휘발유 등 운송용 수요 증가세는 지속되나 경기침체로 인한 경유 및 나프타 등 산업용 수요 감소
 - 고유가 지속 및 인플레이션 압력은 향후 전반적 석유 수요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경쟁력) 한국 원유 정제설비 능력은 357.2만 b/d(세계 정제설비 능력 중 3.7% 차지)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 한국 원유 정제설비능력 357.2만 b/d 중 국내 석유제품 소비규모는 256만 b/d(2021년 기준)로 내수 소비량의 약 40%를 초과하는 정제능력 보유
- 국내 정유설비는 중질유에서 휘발유, 등경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고도화설비 비중이 높아 유럽에 비해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은 특성
- 국내 정유사는 신규 정제설비 투자보다는 고도화 설비 증설 및 공정개선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 석유화학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 비정유 부문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비 중심의 투자 확대 추진
 - 사업다각화의 경우 S-Oil이 2026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7조 원 규모의 COTC(Crude Oil to Chemicals) 투자를 진행 중이며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정유 3사도 투자 계획을 검토 중



□ (수출) 2024년은 올해와 유사한 510억 달러 수준 전망, 이후 선진국 수요 정체 및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출 증가율 제한 전망

- 2023년 항공유, 휘발유 등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회복 등으로 국내 정유설비 가동률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에 있으나 전년대비 유가하락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등 역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액 감소
- 2024년 석유제품 수출은 올해와 유사한 510억 달러 수준이 예상되며, 2026년까지 큰 폭의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정체와 글로벌 공급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큰 폭의 수출액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평가

□ (이슈 및 리스크) 장기 수요 위축 및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 글로벌 경기침체 악화 및 지정학적 불안 요인 지속 등 장기적 수요 위축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중국 및 중동의 생산량 확대는 국내 주요 수출 지역인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
- 특히 중국의 석유제품 생산량 확대 및 수출 쿼터 유지는 국내 정유사의 수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나 수요회복 역시 지연될 경우 정제마진 하락 및 수출경쟁 심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한편 에너지전환 움직임에 따른 전기차 시장점유율 확대, 미국 및 유럽 중심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인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사용 의무규제 강화 등 친환경 대체연료 수요 확대에 따른 장기적인 운송유 수요 둔화 전망
- 정유·석유화학 통합설비인 COTC 개발 및 도입 추진과 기존 정제설비의 바이오제품 생산설비로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한 사업다각화 추진 필요

석유제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출액	381 (57.7)	629 (64.9)	431 (△19.2)	510 (△18.9)	510 (0.0)	520 (2.0)	540 (1.9)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디스플레이

□ (글로벌 트렌드)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3년 1,165억 달러에서 2027년 1,375억 달러로 연평균 4.2% 성장 전망, OLED는 성장단계로 LCD와 가격격차 축소 시 성장속도는 빨라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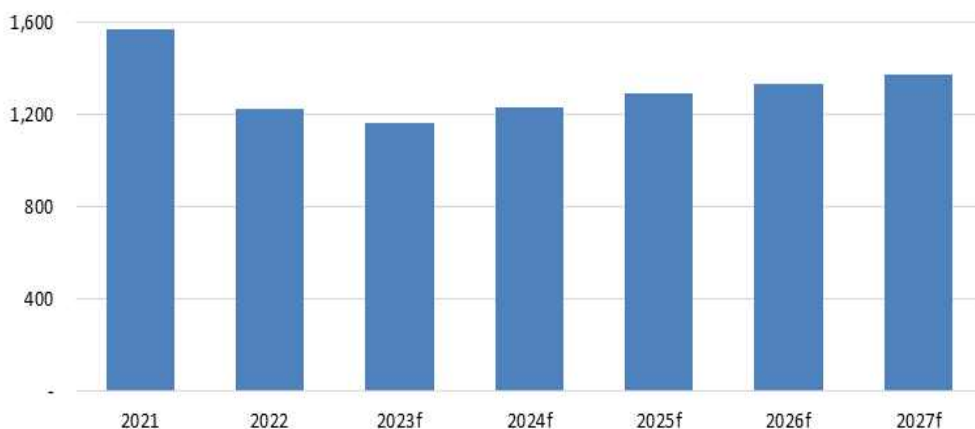
- OLED는 2023년 404억 달러에서 2027년 518억 달러로 연평균 6.4% 성장 전망
- OLED는 스마트폰의 주류 패널로 부상했으며 디스플레이 기업의 수요처 다변화 노력 등으로 TV, IT기기(게이밍 모니터, 태블릿 등), 차량용 패널 등의 침투율 확대 예상
- 2024년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년 대비 5.4% 성장한 1,228억 달러, OLED 시장은 전년 대비 7.9% 성장 전망
- 2024년에는 애플이 최초의 OLED 패널을 탑재한 태블릿을 출시할 계획
- OLED TV 패널은 LCD TV 패널 대비 가격이 약 5배 높지만 고화질 TV 선호로 OLED TV 패널 출하량 비중은 2022년 2.7%에서 2027년 5.4%로 확대 전망

□ (경쟁력) 한국은 17년간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이 LCD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2위를 유지, OLED 부문도 중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

- 한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22)은 36.9%로 중국 42.5%에 이어 2위, OLED 점유율은 한국 81%, 중국 18%로 격차가 크지만 중국의 추격이 거센
- 한중간 중소형 OLED기술격차는 약 2년, 중국은 TV용 OLED 시장은 미진출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 옴디아

□ (수출) 2024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20억 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3년간 수출은 완만한 증가 예상

- 2023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13.1% 감소한 212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
-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철수, LG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TV 패널 생산 중단 등으로 디스플레이 수출은 OLED 중심
- OLED 수출은 OLED TV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하면서 감소
- 2024년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 추세 지속, TV 교체주기 도래(7년 내외), IT 기기의 OLED 탑재율 증가 등으로 디스플레이 수출이 증가할 전망
- 디스플레이 수출은 OLED 시장의 성장으로 중장기적 성장세가 예상되나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수출은 완만한 성장 예상

□ (이슈 및 리스크) 한국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OLED 가격경쟁력 제고, R&D 투자 확대, 수요처 다변화 등이 필요

- 중소형 OLED는 한중기업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대형 OLED는 LCD 대비 높은 가격으로 시장 확대가 제약받고 있어 OLED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
- 중국기업은 한국기업과 기술격차 등으로 자국 스마트폰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하에 OLED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 OLED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장비·소재 개발, 소재 사용 효율화 기술 개발 노력 등이 요구됨

디스플레이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출액	247 (19.0)	244 (△1.0)	171 (△17.7)	212 (△13.1)	220 (3.9)	229 (4.1)	239 (4.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7) 이동통신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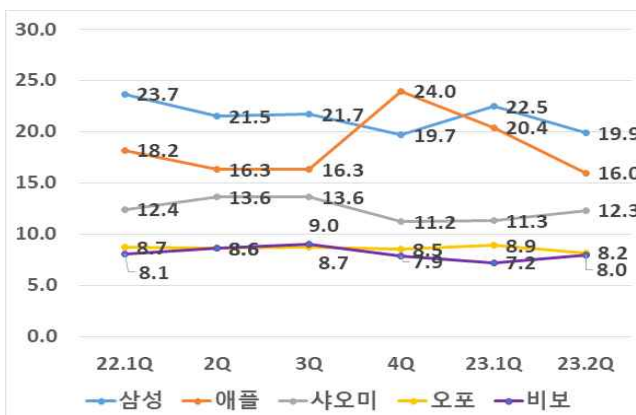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ICT 수요감소와 함께 5G 보급이 완성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 글로벌 통신산업은 약한 성장세를 보임

- '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1.7억대로 전년 대비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7년 출하량은 약 13억대로 추정 (Research and Markets, 23.08)
- '23년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규모는 48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 화웨이·에릭슨·노키아 3강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 5G 보급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며 글로벌 통신산업은 성숙기에 도달 6G가 시작되는 '27년까지는 글로벌 시장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완제품 시장은 성숙기에 도달, 부분품 중심의 성장이 필요
- 스마트폰 완제품 시장은 성숙기에 도달, 부분품 중심의 성장이 필요
 - *국내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은 1% 수준이나 스마트폰 부분품의 對중국 수출비중은 45% ('23.07월 기준)
- 주요국의 5G 보급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며 통신장비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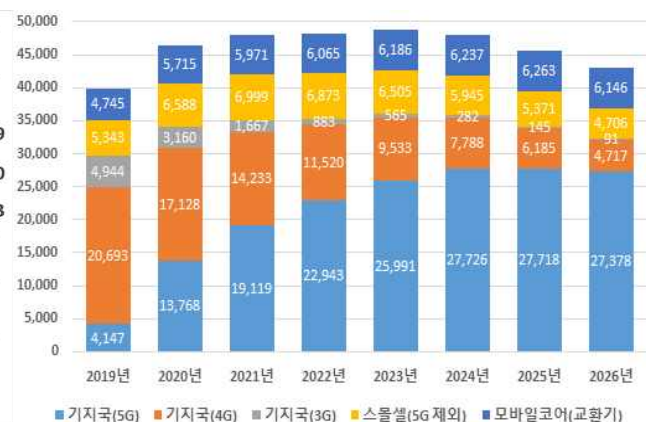
□ (경쟁력)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유지,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5위

- '23년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9.9%로 글로벌 1위를 유지 중이나 샤오미 등 중국기업이 성장을 지속하며 경쟁이 심화
- '22년 기준,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1위(31.3%)를 유지 중이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7.6%로 5위

주요 업체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출하량 기준, %)



2019년~2026년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 재인용, Strategy Analytics 자료; 산업연구원(2022) 재인용, Gartner 자료



□ (수출) 2024년 수출액 전망치는 2023년 대비 3.2% 증가한 145억 달러,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3년 국내 스마트폰 수출액은 완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5.5% 감소한 124.2억 달러 전망
 - 완제품 수출액은 수요감소와 해외공장구축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한 28.5억 달러, 부분품은 주요 생산기지의 견조한 수요로 전년 대비 8.6% 감소한 95.7억 달러 전망
- '23년 국내 통신장비 수출은 글로벌 5G 통신망 보급이 마무리되며 전년 대비 18.8% 감소한 16.4억 달러 전망
 - 글로벌 5G 통신망 보급이 마무리되며 기지국 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하였으며 중계기 및 모뎀 수출은 20.1% 감소
- 국내 통신장비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4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45억 달러 전망
 - '24년 스마트폰 수출액은 글로벌 수요회복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한 128억 달러 전망
 - '24년 통신장비 수출액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한 17억 달러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오픈랜·특화망 등 글로벌 이동통신 패러다임에 변화가 발생하며 추가적인 시장확보 가능성이 존재

- 글로벌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오픈랜¹⁾이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증가
 - 미국(Verizon, Dish), 독일(Deutsche Telekom), 일본(Rakuten) 등은 오픈랜 기반 통신망 구축 중
- 5G 특화망(사설망) 활용이 시도되는 중, 추가적인 통신장비 수요 발생 가능
 - 네이버, LG CNS, SK네트웍스 등은 국내 5G 특화망 시범서비스인 '이음 5G'에 가입

휴대폰 및 통신장비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망	2025년 전 망	2026년 전 망
			1~10월	전망			
수출액	164 (23.6)	167 (1.8)	117 (△16.4)	141 (△15.9)	145 (3.2)	149 (2.7)	153 (2.4)

주: 스마트폰(HS 851713)과 통신장비(HS 851761, 62) 등 수출액을 합한 수치,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2026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1) 오픈랜(Open RAN):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방형 표준에 따라 구축하는 형태를 뜻하며 통신장비 연계성이 줄어들고 기지국 설치 시 다양한 회사의 통신장비 혼용 가능